세광고 vs 인천고…야구대제전 개막전부터 '빅뱅'

2014 야구대제전 오늘 개막…관전포인트는?

프로·은퇴선수 등 모교 유니폼 입고 후배와 한팀
고교·대학 재학생 4명…프로·은퇴선수 6명 구성
6일 마산고-용마고 지역 라이벌팀 격돌도 빅매치

2014야구대제전(대한야구협회·스포츠동아 공동주최)이 5일 마산야구장에서 화려하게 개막한다. 야구대제전은 프로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은퇴선수들이 모교(고등학교)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출전해 선·후배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모교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지난해 32년 만에 부활한 야구축제다. 올해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28개팀이 참가해 5일부터 13일까지 열전을 펼친다. 이번 주말 펼쳐지는 야구대제전 관전포인트를 짚어본다.

●개막 첫날부터 빅뱅

이번 대회는 기존의 대진 추첨 방식에서 벗어나 1회전부터 전통의 라이벌 대결을 성사시켜 야구팬들의 관심을 일으키도록 유도했다. 첫날부터 빅뱅이다. 하루 4경기가 예정돼 있는데, 오전 10시 지난해 4강 진출팀인 세광고와 1981년 우승팀 인천고가 개막전을 펼친다. 이어 부경고(전 부산상고)-군산상고전이 예정돼 있다. 양 팀은 1992년 대통령배에서 홈런 공방전을 벌이며 최고의 명승부를 연출한 바 있다. 당시 부산상고는 김건덕의 4연타석 홈런에 힘입어 신경현 오상민 등이 포진한 군산상고에 10-9로 승리한 바 있다. 진흥고-대구고, 야탑고-덕수고전도 관심을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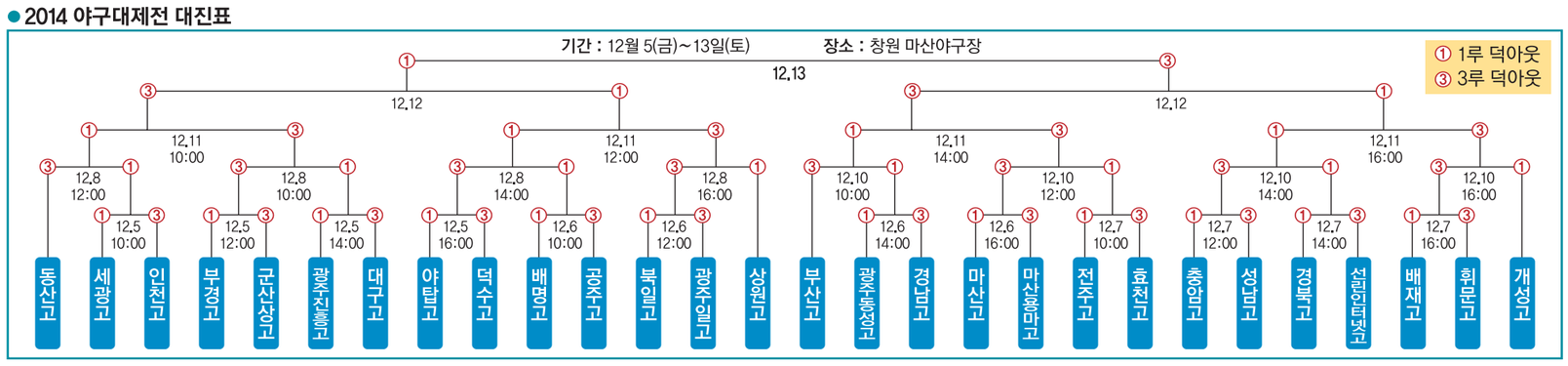
6일에는 배명고-공주고전을 시작으로 천안북일고-광주일고, 동성고(전 광주상고)-경남고, 마산고-마산용마고(전 마산상고)의 경기가 펼쳐진다. 특히 이번 대회가 열리는 마산 지역의 라이벌인 마산고와 용마고전은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이 경기에 앞서 시구한다. 7일에도 전주고-효천고, 충암고-성남고, 경북고-선린인터넷고(전 선린상고), 배재고-휘문고의 흥미진진한 대결이 펼쳐진다.

●대회 규정 알고 보면 두 배로 재미있다

야구대제전은 기본적으로 7회 경기를 한다. 7회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 8회부터는 승부치기를 한다. 단, 준결승전과 결승전은 9회 경기이며, 10회부터 승부치기를 통해 승부를 가린다. 콜드게임은 5·6회 7점으로 하고, 준준결승(8강)까지 적용한다. 경기 출전은 대한야구협회에 등록된 고교 및 대학 재학생은 4명이 출전할 수 있고, 나머지 6명은 프로 및 은퇴선수로 구성해야한다. 6·7회(준결승 및 결승전은 8·9회)는 프로 및 은퇴선수 출전(대타, 대주자, 대수비 등)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단, 현역 프로선수 중 투수는 본 대회에 투수로 출전할 수 없다. 참가선수 중 OB 선수는 협회에서 지급하는 알루미늄 배트를 사용할 수 있다. 대회 시상은 단체상(1~3위까지 모교발전지원금)과 개인상(최우수선수상, OB최우수선수상, 우수투수상, 감투상, 수훈상, 미기상)이 마련돼 있다. 한편 주요 경기를 비롯한 준결승, 결승 경기는 아이스포츠TV와 IB스포츠를 통해 생중계한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

●2014 야구대제전 대진표



프로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은퇴선수들이 모교의 유니폼을 입고 함께 뛰는 2014야구대제전이 5일 마산야구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번 대회는 마산고와 마산용마고(전 마산상고)의 대결 등 흥미로운 대진이 많아 야구팬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작년 대회에서 성남고의 정대현(21번)이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고 있다. 스포츠동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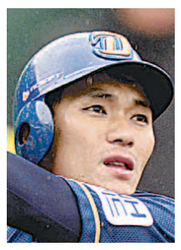
NC 새 주장 이종욱 "이호준 선배가 만든 전통 잇겠다"

"NC의 전통을 이어가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내년 시즌 '공룡군단'의 새 주장으로 이종욱(34·사진)이 결정됐다. 이종욱은 "워낙 이호준 선배가 잘 해줘서 부담이 있긴 하다"며 웃고는 "NC에 좋은 틀을 만들어놓으신 만큼 전통을 잘 잇는 주장이 되겠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NC가 1군에 진입한 뒤 이호준(38)은 2년간 주장 완장을 찼다. 이후 그는 주장의 표본이 됐다. 특유의 친화력과 리더십으로 선수단을 똘똘 뭉치게 했다. 실력도 빼어났다. 1군 진입 첫 해 팀 4번타자로서 타점을 쓸어 담으며 역할을 했고, 올해도 중심타선을 지키며 중요할 때 한 방을 보여줬다.

NC 김경문 감독은 팀이 4강에 진출한 뒤 "(이)호준이가 팀을 잘 이끌었다"며 "처음 프리에이전트(FA)로 데려올 때도 성적 외에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고, 기대를 충족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보이지 않는 큰 힘이었다"고 그에게 공을 돌렸다. 정작 본인은 "선수들이 잘 했는데 나한테 공이 다 넘어와서 오히려 미안하다. 내가 한 일이 별로 없다. 그저 선수들이 잘 따라와 줘서 고마울 뿐이다"고 했지만 이호준은 이미 NC의 상징적 존재가 됐다. 김 감독이 2015시즌 새 주장을 이종욱으로 선정하면서 이호준을 직접 감독실로 불러 얘기를 건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종욱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호준이 형이 워낙 잘 했다. 선수들을 아우르면서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며 "그 뒤를 잇는다는 게 부담이 크다. 그래도 워낙 틀이 잘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NC의 전통을 잇는 주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박석민, 삼성 새 캡틴 선정 "팀 분위기는 내게 맡겨달라"

박석민(28·사진)이 삼성의 새로운 캡틴이 됐다.

삼성 선수단은 최근 대구 시내 한 식당에서 워크숍을 열고 앞으로 2년간 팀을 이끌 새 주장으로 내야수 박석민을 뽑았다. 삼성 주장 임기는 2년인데, 2013년과 2014년 2년간은 외야수 최형우(31)가 역임했다.

박석민은 '그라운드의 개그맨'으로 통한다. 쾌활한 성격에 누구도 당하지 못하는 입심을 자랑한다. 상상도 하지 못한 엉뚱한 모습을 연출해 팬들에게는 물론 동료들에게도 큰 웃음을 선사하곤 한다. 그러나 겉모습과는 달리 그는 진중하고 생각이 깊은 면이 있다. 주장에 선임된 뒤 스포츠동아와의 통화에서도 "아직 감독님께 주장이 됐다고 정식으로 인사도 드리지 못했는데 소감이나 포부 등이 언론을 통해 먼저 나가는 건 그렇다. 내년 1월 시무식 때 시원하게 말씀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사려 깊은 부탁을 했다.

삼성 주장 선임은 감독이나 구단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선수들이 자율적으로 투표로 뽑는데, 박석민은 이번에 선수들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얻어 주장으로 선출되기에 이르렀다. 그는 대구구장의 마지막해인 2015년과 신축구장의 첫해인 2016년을 잇는 차기 주장으로 활약하게 된다.

2011~2012년을 포함해 총 7년간 삼성 주장을 장기집권(?)한 진갑용(40)은 "박석민이 언뜻 보기에는 웃기고 덜렁덜렁한 것 같지만 리더십이 있다. 무엇보다 성격이 좋아 선수들과 융화도 잘 되고 있다. 그런 점이 인정돼 주장에 뽑히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주장으로서 다소 어린 나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우리 팀에 중간층 선수들이 많아서 박석민이 주장 역할을 충분히 잘 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재국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

가축에 사용된 항생제, 인체에 '치명적 결과' 초래 (매일경제 2014. 1. 29)

자연을 담은 착한이야기 캠페인,
1. 가축에 사용된 항생제
2. 음식점의 위생불량
3. 식당, 술집 공기오염 노출 높아
4. 치킨무 실체공개
5. 충격적인 생맥주의 비밀
6. 가구, 알고보니 발암물질 우글

동물에 먹이는 "항생제" 인체에도 영향 미친다 (국민일보 2014.03.04)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8097884&cp=nv
가축에 사용된 항생제, 인체에 치명적 결과 초래 (매일경제 2014.01.29.)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53209
항생제 과다투여 생닭 파문 ○○○ 공식 사과 (SBS 2013. 01. 11)
http://w3.sbs.co.kr/news/newsEndPage.do?news_id=N1001576823
"친환경닭이 특별한 이유" (2011.5.9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702&idxno=436138
"가축사료에서 항생제를 몰아내야 하는 이유" (2010.8.9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369253&cloc=olink|article|default
"즐겨먹는 통닭은 항생제 덩어리?" (2010.7.25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72509393784080
"항생제 전혀 안 쓰고 기른 닭, 조류인플루엔자도 얼씬 못해" (2009.11.20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191745455&code=950312